

월요광장

한 해의 마무리



홍 상 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어느새 연말이다. 그리 좋지 않은 경기 탓인지 떠들썩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송년모임을 하자는 지인들의 연락에 또 한해가 간다는 사실이 실감난다.

올 한해 다사다난했던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콘텐츠산업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연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의 큰 인기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청신호를 켜더니 이후 다양한 우리 콘텐츠의 해외 활약 소식이 이어졌다.

애니메이션 ‘닛장 : 땅콩도둑들’은 한국영화 최초로 1억2000만 달러 이상 글로벌 흥행 수익을 기록했고 ‘히든싱어’, ‘꽃보다 할배’, ‘나인’, ‘굿닥터’ 등의 방송 콘

텐츠가 중국을 넘어 미국까지 포맷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

진흥원이 주최한 서울국제뮤지컬페어를 통해 해외 진출의 기회를 잡은 노브레인, 글렌체코, 잠비나이 등의 인디밴드들이 해외 공연을 펼치며 세계인들에게 케이팝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또 서울시의 ‘타요 버스’가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자 ‘라바 지하철’, ‘보로로 택시’가 등장하며 우리 캐릭터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도 했다. 영화 ‘명량’은 1700만 명이 넘는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

바이흐로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문화융성을 이끄는 콘텐츠산업의 저력을 보여준 한 해였다. 그 결과, 올해 콘텐츠산업은 작년보다 매출액과 수출액이 각각 7%와 11% 성장한 96조 원과 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좋은 소식만 있지는 않다.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게임의 성장세는 작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세 또한 둔화되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나친 호들갑이긴 하지만 사

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큰 히트작이 없다 보니 한류 열풍이 식고 있다는 성급한 진단도 들려온다.

‘별에서 온 그대’의 큰 인기에 놀란 중국 정부가 수입쿼터제 등의 보수적인 정책으로 우리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어렵게 하면서도 자국 콘텐츠산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콘텐츠가 중국과의 경쟁으로 고전을 겪고 있기도 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콘텐츠 창의생태계의 기반이 될 ‘콘텐츠코리아 랩’의 안착, 콘텐츠산업의 씨앗이 되는 ‘이야기’의 산업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질적인 글로벌 한류확산 성과를 위한 다 부처, 기관과의 협업체계 가동이라는 올해의 세 가지 중점목표를 향해 임직원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달려왔다. 어느 목표는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일부는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은 광주전남혁신도시로의 이전이었다. 4년여의 준비를 하였건만, 200여 명의 직원들이 생활 터전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직 콘텐츠기업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환경에서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을 총괄 진흥하는 우리의 임무를 잘 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일도 많았다.

그래도 지난 8개월을 돌아켜보니 막막했던 처음과 달리 지역주민들과 유관기관들의 환대와 도움으로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아직 갖춰야 할 시설이 많지만 이전 기관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광주전남혁신도시에도 활기가 넘치고 있다.

그리고 보면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남다른 한해이다. 이제 곧 한국콘텐츠진흥원의 3년 임기를 마치게 되기 때문이다. 임기 중에 개인적인 욕심이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에 조금의 보탬이라도 더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 3년을 보내왔다. 물론 직원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에도 미땀한 3년을 보냈노라고 자평한다.

2015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면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또 다른 새해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인생계획을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법조칼럼

우리의 교통문화에 관한 단상



권 대 형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다.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로 도로의 우측에 차량이 여럿 주차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운전자들도 이에 대해 별로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 기사도 주차해 둔 차량을 피해서 다니곤 한다.

이러한 주차실태는 위 피의자의 주장처럼 광주의 교통사고를 심각하게 증가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광주는 작년에도 7대 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자동차 1만 대당,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이 2위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를 가법게 앞질렀다. 이러한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에는 잘못된 주차문화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적법하장적인 위 주장 중에도 일응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있는 셈이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횡단보도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 불이 들어와 있거나 점멸하는 경우 차량을 정지하게 되는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뒤에서 기다리는 차로부터 빨리 지나가라는 경적 소리를 종종 듣게 된다. 이러다 보니 뒤에 차량이 한 대라도 있으면 앞차의 운전자로서는 좌불

안석이 된다. 횡단보도의 통행을 지지하는 차량용 신호기까지 설치되어 있다면 신호위반이 될 것임에도 뒤차로부터 신호를 위반하라는 경요(?)를 받는 셈이다. ‘빨리빨리’ 식의 생활방식이 만들어낸,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는 운전문화의 한 모습이다.

문화지체(cultural lag·文化滯滯)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오그번(Ogburn, William Fielding)이 자신의 저서 ‘사회변동론’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물질문화’와 비교적 완만하게 변하는 ‘비물질문화’ 간에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를 의미한다. 불법주차나 여유 없는 운전문화는 우리의 ‘물질문화’를 ‘비물질문화’인 교통의식이 따라주지 못해 생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대의 과학 문명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의식은 여전히 전통적인 농경 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영북 1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끔 보곤 한다. 무단횡단이라는 뜻의 영어 ‘jaywalking’의 ‘jay’는 원래 촌뜨기란 뜻으로, 시골 촌뜨기가 대도시에서 난생 처음 본 신호등을 모르고 그냥 길을 건넌

다는 말에서 기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2명으로 OECD 평균인 1.0명의 2배를 상회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에서는 운전하려면 만큼 높은 사고율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자가용 등록 대수가 2000만 대를 넘었다고 하는데, 교통 의식 수준이 그에 따라야 할 것임은 긴박히 필요치 않다.

낙후된 교통문화는 교통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사상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형사 절차 등 제반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트래픽(Traffic)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심리·과학 저널리스트인 톰 밴더빌트(Tom Vanderbilt)는 자신의 저서에서, 실제로 교통문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보다 문화적 규범으로서 특정 장소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강력한 단속이나 처벌에만 의지해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의 발달에 발맞추어 우리의 교통문화도 한층 성숙해지길 기대해 본다.

社 說

올해도 배추값 폭락, 정부 대책은 없는가

연중 배추 수요가 가장 많은 김장철이지만 산지 물량이 넘쳐나면서 농민들이 울상이다. 2~3년에 한번만 ‘대박’을 터뜨리면 된다는 농민과 유통상인들의 한탕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과잉재배로 이어지고 결국 가격 폭락과 같이 어렵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전남도가 집계한 올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4003ha로 2012년에 비해 36.3%나 증가하는 등 최근 2년 사이 크게 늘었다. 따라서 가격 폭락으로 포기당 1000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작년보다 500원, 시세가 최고였던 재작년에 비해 무려 2300원 이상 떨어졌다.

가격이 폭등한 이듬해 농민들이 배추 재배면적을 늘리고, 유통상인들은 발매가로 사들이는 투자심리가 파고들면서 ‘날뛰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금년만 하더라도 재배 증가 추세에 반비례해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다.

농림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0월 과잉생산된 10만 t을 시장에서 사들

였고 최근까지 3차에 걸쳐 추가 매수를 해왔다. 그런데도 가격 회복 기미가 없자 급기야 해남군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밭 갈아엎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올해 가격이 폭락한 만큼 내년에는 대박 수준의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다시 과잉재배가 유행할 것이다. 농민들로선 지금까지 경험상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중 FTA 타결로 향후 발착불의 피해가 우려되고 중국산 김치 수입은 더욱 늘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이클이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을 비롯 세계 주요국들과 FTA가 속속 타결되고 있어 농산물 공급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가격이 떨어지면 예산으로 사주는 조령모개식 조절책은 이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정당국의 정확한 재배의향 조사 실시, 정밀한 예측과 농민 계도를 통한 작목 율립방지 등 근본 대책이 더 시급하다.

CCTV 설치 예산 늘려 ‘치안 불안’ 막아야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 시민들의 CCTV 설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이 이유로 광주시의 내년도 CCTV 설치 계획은 민원 접수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에 거주하는 김기희(여·21)씨는 최근 귀갓길에 불안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김씨는 지하철 일구에서 집까지 도로변을 따라 10분가량 걸어야 하지만 CCTV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광주시 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 설치된 CCTV는 총 3106대로 어린이보호구역(1596대)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방범용(1414대)은 절반에 불과하고 있다. 올해 설치된 CCTV는 방범용 10대와 어린이보호구역 130대뿐이며, 내년 설치 예정 방범용도 20대로 전체 민원 600건의 8%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CCTV 설치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설치비용과 운영비가 많이 들어 설치에 한계가 있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범죄 취약구역에 CCTV 1개소(2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만 1620만 원이며 전체 3106대의 전기료 및 인건비 등 관리비만 한해 6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관제센터 개소 후 광주시 4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5.6% 감소하고, 영상과 화상 순찰로 검거한 범인만 476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타령만 할 일은 아니다. 치안은 행정의 기본이자 예산의 제1 순위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투입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확대하고, 범죄 취약구역 등 설치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해 시민들의 치안 불안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경찰청도 그 존재 이유가 치안에 있는 만큼 순찰 강화 등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어린 시절 기억 속 풍경 하나를 떠올려 본다. 1970년대 초등학교 방학 때 찾아가곤 하던 시골 외갓집은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을 밝혔다. 정확하게 몇 해 뒤인지 기억이 가물거러지만, 어느 해인가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마을에서 좀 사는 어느 집에서 TV를 안방에 틀었다.

지금과 달리 TV가 워낙 귀한 때인지라 TV에서 인기 높은 드라마를 하는 저녁시간이 되면 하나 둘 마을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 들었다. 마루까지 앉고 도 모자라 마당까지 웅기총기 모여앉은 마을사람들은 TV에 몰입해 마냥 즐거워했다.

초등학교 시절, TV속 애니메이션이나 ‘명화의 극장’은 너무나 재미있는 신세계였다. 흔히 TV를 ‘바보상자’라 부르는 것은 하지만 어린이에게 TV는 세상의 온갖 것을 보여주는 만화경이었다. TV는 어느 한 사람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축적돼온 과학적 토양에서 만들어졌다. 영상을 전선으로 전송한다는 아이디어는 1870년대에 제시됐다고 한다. 1829년 독일 물리학자 브라운이 ‘브라운관’을 개발했

고, 1913년에 광전지가 발명돼 영상의 전자식 전송을 위한 길이 열렸다.

이후 라디오와 활동사진이 발명되자 엔지니어들은 두 발명품을 영상 방송 장치와 결합하기 위해 시도하게 됐고, TV를 발명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 출신 미국 블라드미르 즈보리킨(1889~1982)은 1923년 전자식 영상 전송장치인 ‘카네스코프’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음극선관 한쪽 끝에 형광물질

을 바른 화면을 만들어 그 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재생하는 장치로 현대식 TV의 기초로 자리를 잡았다. 오늘날 TV를

위시한 방송산업은 새로운 대중문화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매체로,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뿌리를 내렸다.

브라운관 TV가 사라진다는 소식이 다. 필리핀에서 브라운관 TV를 만들고 있는 일본 샤프사 등이 내년을 마치 막으로 생산을 종료할 예정이라 한다. 아날로그 LP가 디지털 CD에 밀려나는 것 같은 모양새다.

이제 20여년 가까이 사용돼온 ‘골드스타’제 브라운관 TV를 LED TV로 바꿔야할지 고민스럽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기 고

U대회,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 범하지 말아야



홍 화 성 광주시 U대회지원과장

기해야 할 시점에, 대회 유치 당시 사용한 유치활동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U대회의 의미가 퇴색하고 대회 준비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물론, 모든 행정은 투명하고 건전하게 추진되어야하며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시 역대 최대의 행사, 광주가 세계를 향해 열린 도시로 나아가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2015하계 U대회를 망쳐버린다면 이는 소를 잃어버리는 꼴이다.

과거 전형적인 소비도시였던 광주는 자동차, 디지털가전, 관광업 등 주력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는 생산도시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 무한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고, 광주는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하였다. 이에 광주시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규모이면서도 광주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U대회를 유치하기로 결정하였고, 2008년 2013하계 U대회 유치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광주가 어디에 있는 도시냐고 질문을

받음 만큼 국제무대에서 광주는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도시인 반면, 경쟁도시인 러시아 카잔은 세 번째 도전으로 경험이 풍부하였고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유치가 성공하였다.

절치부심해 2009년 재도전을 하였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상대는 인구 천만의 대만 수도 타이페이와 캐나다 에드민턴 같은 경쟁한 도시들이었다. 하지만 광주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열망이 모아 유치가 성공하였다. 당시 실시간 장인 스테판 버그 FISU집행위원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시민 유치 열기’로 꼽았을 만큼 유치가 절대적이었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유치활동비는 지난 2008년 2013하계 U대회 유치당시부터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광주시는 외교관계 악영향 및 국가 신인도 추락을 우려하여 공개하지 않았으나 6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지난 10월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하게 된 것이다. 또한, 같은 논리로 2015하계 U대회 유치활동비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광주시가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공개했다고 비난하는 일부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직무과장으로서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오직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 유치에만 온 힘을 다한 나머지 유치과정에서 다소 흠결이 있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유치 당시의 문제점이 현시점에서 계속하여 부각된다면 대회개최 전부터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고 우리 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각인되어 시민들의 참여는 저하되고 정부의 지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광주시외의 관계까지 악화될까 우려된다.

지금은 모든 시민의 힘을 모아 성공적인 U대회 개최를 위해 매진할 때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하며, 지역언론, 오피니언 리더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모두 광주라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U대회 성공개최와 우리 시 발전이라는 대의를 생각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 광주는 열린 광주, 당당한 광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19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2-9550)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15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